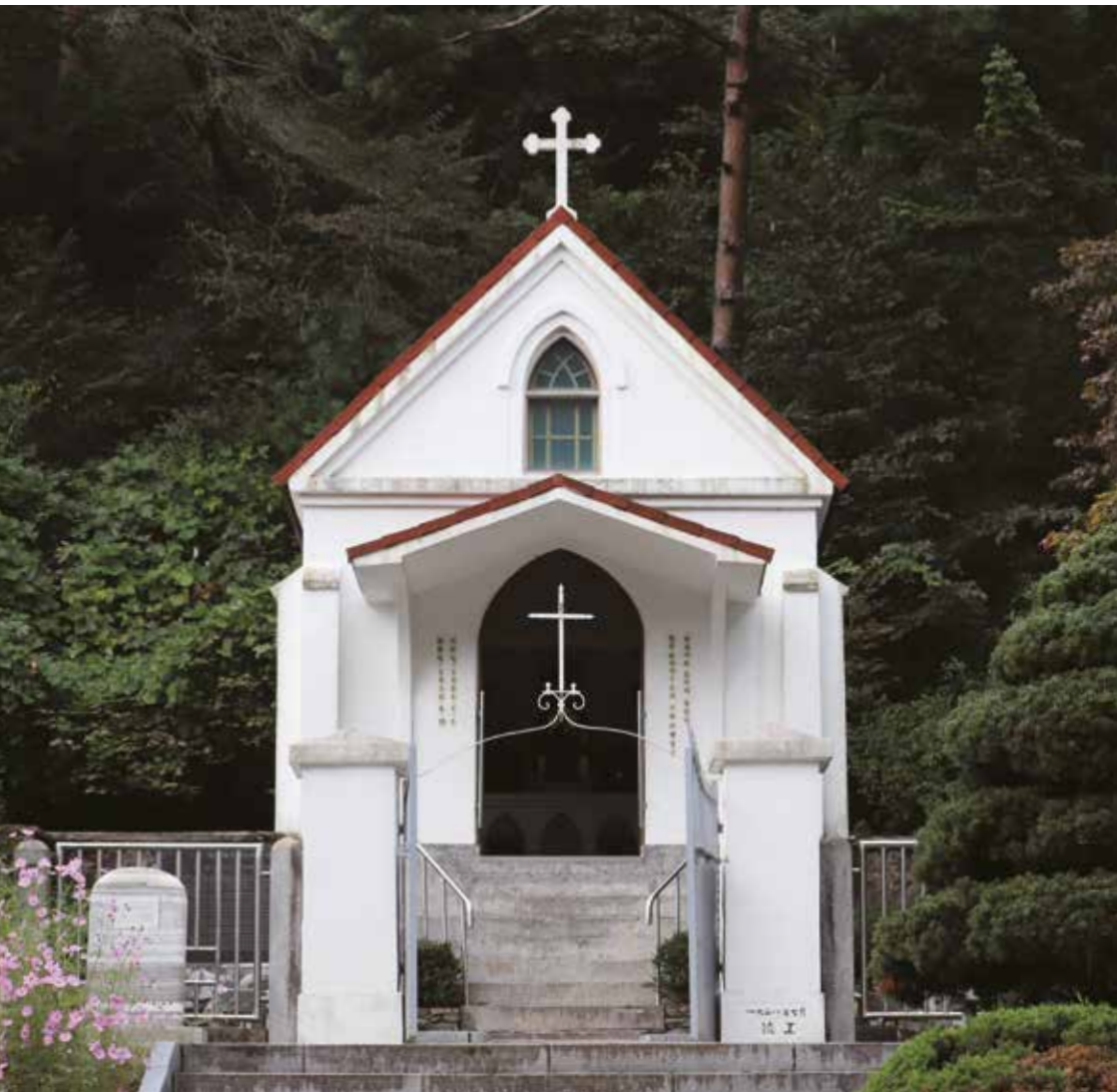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2 | NOVEMBER 2020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0년 11월호 / 통권 282호

발행일 2020년 11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0©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82 | NOVEMBER 2020

Editor's Note	4
특집	6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2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전례와 생활	18 세례는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4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2
신앙과 삶	28 코로나19 속의 신앙생활
듣다 읽다 보다	32 고전음악을 듣다 38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4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0 티나씨의 티비보기 52 성미술 이야기



THE COVER

교회 초기에 신앙의 선조들이 흩어져 살던 집에서 흘러나온 호롱불빛과 밤하늘의 별빛이 많은 시냇물과의 어울림이 별무리 은하수와 같이 붙여진 지명의 미리내 성지는, 새남터에서 순교하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시신이 안장된 묘소와 여러 무명 순교자의 묘역이 있는 거룩한 성지이다. 미리내성지 경당에서, 류정호 테레로사_여행작가



미리내 성지, 김대건 신부 기념경당 내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처음에 얼마 가지 않고 끝날 것이라고 걸었던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오는 실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톨릭 직장 교우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보호가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11월호를 기점으로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의 편집 스타일과 방향, 게재되는 글의 성격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도 올 컬러 편집이겠지요. 그리고 게재되는 글도 이전 월간지와는 달리, 6대 4의 비율로 가톨릭 신앙인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내용의 교회 가르침과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데 도움이 될 읽을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된 이유는 직장인 사목팀에서 발간하는 이 잡지가 신앙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시며, 비 신앙인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선교의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뿌듯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눈에 띄입니다. 더욱 좋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애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직장인 사목팀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끝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톨릭 직장인>은 무가지이며, 배송비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아주 저렴한 원고비와 봉사자들의 손으로 편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는 2021년도 월간지 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교구 내의 각 부서의 예산이 최소 20-30% 정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각 교우회에서 월간지 발행을 위해 후원해 주시거나, 광고를 게재해 주실 수는 없는지를 감히 여쭙어봅니다. 그 밖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장인 사목팀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뉴시크리태라교회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피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2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참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김대건 1”에서 세 소년이 마카오에 도착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 김대건 신부의 신학생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승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대건의 신학생 시절을 조명해 본다.

“조선 소년 2명을 보냈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기회가 없을까 걱정이 되어 비록 저하고 4-5개월밖에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소년을 추가로 같이 보냈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성명을 도착순으로 소개하면, 지난 2월 6일에 최 토마스, 3

월 14일에 최 프란치스코, 7월 11일에 김 안드레아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교우들입니다. ... 이 소년들은 온순합니다.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열심과 순명으로 공부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조선 신학교의 설립을 위해 제일 좋은 장소로 조선 소년들을 보냈고, 다음 편지에서 그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위의 편지 내용은 모방 신부가 1836년 12월 3일 3명의 소년과 유방제 신부, 조선인 9-10명



김대건 신부님 동상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맘의 증거자

피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2

의 수행원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써준 편지 내용이다. 3명의 소년 중 김대건은 가장 늦게 신학생으로 발탁되었고, 라틴어의 기초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모방 신부는 조선교회의 첫 신학생들이 가장 좋은 교육환경에서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6개월이 넘는 대장정의 유학길을 거쳐서 마침내 6월 7일 마카오 경리부에 도착했다.

“샤스탕 신부가 보낸 2명의 밀사들이 ... 3명의 조선인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방 신부의 여러 편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17세에서 18세까지의 이 학생들은 놀랄만큼 순박해 보입니다. ... 여담입니다만, 페낭신학교의 선생들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부패 정신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별과 교만과 비판정신입니다. ... 또 우리는 앵베르 주교에게 칼리리 신부가 주교의 신학교를 맡기에 아주 적임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1837. 6. 13 마카오 부대표 바랑탱 신부가 파리로 보낸 편지)

3명의 소년을 가장 처음 맞이해서 파리 본부로 소식을 전한 이는 당시 마카오의 부대표

를 맡고 있었던 바랑탱(Barrentin)신부였다. 대표였던 르그레주와 신부가 병석에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목표 제 일 순위는 현지인 사제 양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3명의 소년의 교육에 대해 매우 신중히 고민하고 있었다. 사천(四川)에 있었던 앵베르 선교사가 제 2대 조선대목구장이 되었고, 추천을 받아 칼리리 신부가 조선 신학교 첫 번째 교장을 맡게 되었다. 조선 신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신학교를 준비했던 칼리리(Callery) 신부의 노력을 들여보자.

“친애하는 신부님, ... 주문품은 이려합니다. ... 잡지, 수준기(水準器), 기압계, ... 최고 품질의 연필 3타스, ... , 자명종. 마지막 물건, 즉 자명종은 위의 여러 물건들과 함께 우리 조선 학생들과 지금의 나의 처지에서 볼 때 제게 거의 필수품들입니다. ... 나의 조선 소년들의 목소리가 매우 쉼 목소리이고, 완전히 음정이 맞지 않는 목소리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 노래와 성가들을 가르쳐 그것을 좀 교쳐볼까 합니다.”

“이밖에 또 바늘, 성냥, 부싯깃 또 이런 종류

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더 보러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 내년엔 북만주로 이전하게 될 나의 조선 신학교를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한 것들입니다. ... 나는 벌써 조선말을 좀 합니다.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이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그마한 손품금이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이 조선을 위해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칼리리 신부는 1835년 조선선교사로 임명되었지만, 조선입국이 불가능해지자 마카오에 머물면서 신학생을 담당하는 ‘초대 교장’ 역할을 맡았다. 위의 두 편지는 칼리리 신부가 각각 1837년 10월 4일과 6일에 연속적으로 파리 신학교에 있는 트송 신부에게 보내서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없는 도움을 요청하는 대목이다. 학업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청하고 있다. 또한, 목소리 교정과 음악을 위한 손품금도 요청하였다. 같은 내용을 이틀 간격을 두고 거듭 편지를 보낸 것은 우편을 운송해주는 배편이 마침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받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그

리고 신학교의 위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신학교로 보낼까 했지만 그곳 환경이 좋지 못하여, 조선 혹은 요동지역, 또 북만주 지역에 새로운 신학교 건립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편전쟁의 여파로 인해 마카오 지역이 위험해짐에 따라 필리핀 혹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마카오 대표부에 계속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세 소년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고 여겨진 최방제가 11월 27일에 위열병으로 갑작스럽게 선종하고 말았다. 더위와 풍토병과 싸우면서 나머지 두 소년은 라틴어 공부와 신학교공부를 이어갔다. 중국대륙의 아편 거래가 마카오에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마닐라로 피신시키게 되었다. 1839년 조선에서는 이미 기해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해 4월 6일 마카오를 떠나 스승과 제자들은 필리핀 롤롬보이로 향했다.

“4월 19일 아침에 마닐라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피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2

... 칼르리와 데플레슈 신부, 두 학생은 뱃멀미를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 승객들이 많아 방들이 다 찼으므로 선장은 자기 방과 부선장인 자기 동생의 방을 우리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은 갑판, 심지어는 바닥이나 의자에서 잤습니다. ... 이곳 도미니코회 수도원이 도무지 마음에 안드는 칼르리 신부는 마닐라에서 배편으로 3일이 걸리는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서 5월 2일 거기로 떠났습니다. ... 우리도 시골의 도미니코회 수사들 집을 가기 위해 마닐라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더 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마닐라에서 가까운 장소로 롤롬보이라고 합니다.”

마닐라로 피신한 학생들은 적응기간을 가진 후에 도미니코회 수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롤롬보이 농장으로 향했다. 배를 오래 타보지 못했던 두 소년은 배멀미를 심하게 했을 것이다. 롤롬보이에는 칼르리 신부, 리브와 신부, 데플레슈 신부 외에 조선인 신학생 2명, 코친차이나(베트남 남부) 신학생 2명이 있었다. 이 시기 리브와 신부의 편지 속에 김대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김대건) 안드레아를 제외하면 모두 건강합니다. 안드레아는 자주 복통과 두통과 요통을 앓습니다. 그는 마카오에서 철면조 집의 머들보를 들어올린 후부터 허리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마카오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르리 신부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칼르리 신부는 그것이 발육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트와베트 신부의 처방대로 약을 지어 주게 하였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먹고 잘 잡니다.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1839. 5. 16 리브와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

리브와 신부에 의하면 초대교장으로 임명된 칼르리 신부는 매우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로, 필리핀의 환경에 매우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칼르리는 1841년 마카오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가 외방전교회에서 탈퇴를 하게 된다. 데플레슈 신부가 교장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다. 롤롬보이에서는 부대표인 리브와 신부가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산책도 함께

신학생으로 선별된 소년 김대건

출처: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시회 도록, 25페이지



했다. 데플레슈 신부가 주로 수업을 하였고, 조선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세 선교사(모방, 샤스탕, 앙베르)가 모두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직 기해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다. 남아 있는 두 소년의 교육환경은 결코 좋지 못했다. 정식 학교나 정식 교사가 없이 임시적인 교육으로 출발하였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었다. ☺

이달의 기도지향 및 실천

- 1) 김대건, 최양업 소년은 적응하기 어려운 유학 환경에서도 과정을 잘 마치고, 사제서품을 받고 돌아왔다. 그들의 열정이 두려움을 몰랐고, 그들의 노력이 지칠 줄 몰랐다.
- 2)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하지만 김대건 · 최양업 두 소년들을 본받아 어려운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실천하기.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사도 바오로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필리피서’와 같이 옥 중서간으로 불립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바오로 사도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집니다.

1. 콜로새 신자들에게 서간을 쓰게 된 이유는?

당시 콜로새의 신자들은 이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교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 때문에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콜로새에 교회를 세운 에파프라스는 바오로에게 이런 위기의 상황을 보고하고 긴박하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에파프라스는 바오로와 함께 감옥에 갇힐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했는데(필레 1,23), 자신의 고향인 콜로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에파프라스의 요청에 따라 쓴 것으로 4장의 짧은 분량인데, 바오로는 그리스도교적 전망을 우주로 확대하여 그리스도가 행하는 구원의 역사와 창조 역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강론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편지를 썼습니다(사도 28장 참조).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 연유를 보려면 콜로새교회의 창시자 에파프라스(콜로 4.12)와 콜로새가 고향인 오네시모스(콜로 4.9)라는 노예를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에파프라스는 바오로와 함께

감옥에 갇힌 동안 콜로새 교회의 사정을 사도 바오로에게 전해주었습니다(콜로 1,7-8). 콜로새 교회에 숨어든 거짓교사들이 큰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 판을 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문화와 사상, 그리고 종교가 교류되어 혼합된 도시인 콜로새의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교 믿음을 변질시킬 위험이 있는 이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필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 나와 로마까지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당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오로를 만나게 되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오로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필레 1장 참조).

2. 편지의 내용

이 편지의 수신인인 ‘콜로새에 있는 신자들’(콜로 1,2)은 ‘사도 바오로를 직접 못 본 사람들’로 대부분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에파프라스로부터 콜로새 공동체의 믿음을 전해들은 사도 바오로는 사랑과 관심, 호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단을 조심하라고 권고하면서 거짓교사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격하시키는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 콜로새 서간의 신학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사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고 하느님과 화해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1장 15절부터 20절의 그리스도 찬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찬가에는 우주론적 그리스도상만이 아니라, 그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신비체로서의 교회관도 역시 드러납니다. 여기의 그리스도론은 사도 바오로의 신학사상이 발전 상태로, 가장 발전된 그리스도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콜로새 교회 신자들이 신앙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릇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콜로새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천사들에 관해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게 바쳐야 할 예배에 관해서, 또 천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위치에 관해서 이단 사상을 펴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할례와 음식에 관한 규정, 천사들을 공경하는 예식 등을 실천시키려 애썼고, 그런 주장들로 콜로새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에파프라스는 로마로 와서 사도 바오로에게 이 문제들과 그로 인한 교회의 정황을 알렸고, 이에 바오로가 콜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단설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강경하게 반박한 것입니다. 콜로새인들에게 퍼져 있던 그릇된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서간에서 사도 바오로는 간단한 언급 후 바로 반박하며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리스도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콜로새는 어디인가요?

콜로새는 소아시아(지금의 터키 지역) 남부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에페소 교회의 영향으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사도 바오로가 직접 콜로새에서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바오로의 동료인 에파프라스가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 등지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 중의 하나입니다(1,7; 4,12-13). 이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세 도시는 안타깝게도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기원후 60-61년에 이 지역을 휩쓸었던 심한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

한달 동안 성경읽기

<input type="checkbox"/> 1장 1주간 콜로새서 1,1~1,29	<input type="checkbox"/> 2장 2주간 콜로새서 2,1~2,23	<input type="checkbox"/> 3장 3주간 콜로새서 3,1~3,25	<input type="checkbox"/> 4장 4주간 콜로새서 4,1~4,18
---	---	---	---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콜로새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각각 누구인가?(1,1-2)
- ②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를 가리켜 무엇이라 불렀나?(1,1)
- ③ 사도 바오로는 에파프라스를 무엇이라 불렀나?(4,12; 필레 1,23)
- ④ 콜로새의 신자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나?(1,7)
- ⑤ 콜로새 신자들의 사랑을 바오로에게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1,7-8)
- 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2,6-19)
- ⑦ 사도 바오로가 복음을 선포하며 지혜를 다하여 사람을 타이르고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인가?(3,16)
- ⑧ 사도 바오로가 말한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란 무엇인가?(2,11)
- ⑨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우상 숭배란?(3,5)
- ⑩ 사도 바오로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4,10)
- ⑪ 콜로새서는 콜로새 외에 어느 교회에서 읽도록 기록된 편지인가?(4,16)
- ⑫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1,22).
- ⑬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를 읽으십시오(3,12).
- ⑭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를 읽으십시오. ()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3,13-14).
- ⑮ ()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4,2).

세례는 받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물로 씻는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성사는 가톨릭교회에 발을 들이기 위한 성사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성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단체인 교회에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 성사를 통해 다른 성사들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로 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더불어 입문성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세례성사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예비자 기간을 그저 의무적인 통과의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경우라면 이런 기회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예비신자 기간을 꼭 보내야 하나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이를 받는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매우 뜻깊은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도 오늘날보다 더 길었고, 그 기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기간이 입문자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에 확신을 불어넣는 기간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결심을 다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초세기에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걸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시기 동안 세례를 청하는 이들이 얼마나 성실

히 하느님을 따르려는 자신의 의지를 다져나갔는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전통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으로, 탐구와 성숙의 기간을 단계별로 마련하여 세례성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비 신자들이 "신자 생활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간 매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54조 1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하느님을 향한 회심 없이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적절한 기간을 정해 권고하는 것입니다.

예비 신자들에게도 혼배미사와 장례미사가 가능한가요?

‘예비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가졌던 관심자들은 ‘예비자’로 승격됩니다. 이들은 공적으로 교회에 자신의 뜻을 열어 보이고 신앙심을 갖고 기도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상태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예비자들은 비신자와 구별되며 그리스도 집안의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전례에 참여하고 축복과 준성사를 받을 권리를 교회로부터 받으며, 결혼할 경우에는 혼인예식을 받을 수 있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교회의 장례식을 받을 권리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신비의 중요한 뜻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므로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더라도 세례받은 이들과 영성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명은 왜 정하나요?

세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떠올리는 첫 번째 고민은 세례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예비 신자들이 세례명을 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변화하는 이름을

통해 새로운 소명을 얻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사라이가 사라(창세 17,15)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달라진 것이 그런 예입니다.

보통 세례명은 성인(聖人)의 이름으로 정하는데, 이는 그 성인의 품행과 성덕을 본받고, 그분을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며 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며 전구를 보장해 줍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156항 참조). 그런 이유에서 세례명을 성인의 이름이나 그리스도교적 의미와 동떨어진, 유명인이나 단순히 멋있는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법에서도 “부모와 대부모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교회법 855조).”라고 지적합니다.

오늘날에는 성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아가페(사랑)나 나탈리아(성탄) 등의 예처럼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지역 관습으로 흔히 사용하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명을 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교회는 사목적 혼란을 피하고자 **세례명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2015년 춘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꼭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나요?

이처럼 여러모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세례를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본인들이 자라서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요즘 들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는 유아나 어린이는 아직 세례성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성사를 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2세기 문헌들에서 유아세례 실행의 증언들이 발견되었고, 점차 역사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이라도 용서의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지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DH 223 참조)’는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차이는 유아 세례자는 스스로 회

개하고 믿는다는 응답의 표시를 할 수 없기에 부모와 가족의 도움을 통해 비로소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는 지극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니다. 개정된 현행 예식서도 예식에서 신앙 고백과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부모와 대부모가 어린이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는 공동체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어린이가 살도록 음식을 먹이는 것이 그 어린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듯,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어린이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님을 부모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확신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신앙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능한 한 일찍 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자녀는 세례를 받더라도 본인이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의미들을 금세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장면을 그려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새로 났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다니엘 / 다니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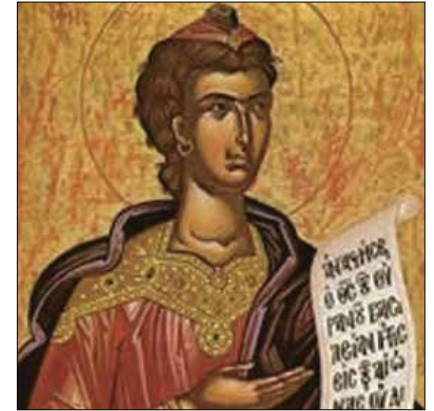
Daniel / Daniela (축일: 7월 21일)

박희전 루케시오 작은형제회

주변을 살펴보면, ‘다니엘’ 혹은 ‘다니엘라’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세례명인 ‘다니엘’ 혹은 ‘다니엘라’에도 숨은 ‘영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원적인 차원에서부터 ‘영성적인 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되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דַּנְיֵאל (Daniyyel)이 됩니다. 이는 다시 두 부분으로 분할되는데, 먼저 דַּנִּי (Daniy, 다니)라는 말은 판관(재판관)이라는 명사인 Dan의 1인칭 소유형 어미가 붙어서 해석하면 ‘My Judge (나의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אֵל은 엘로힘, 곧 ‘하느님’을 지칭하는 축약대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재판관(심판자)’이시라는 의식을 대변하는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성형이라면 Daniel(다니엘), 여성형이라면 Daniela(다니엘라)가 됩니다. 둘 다 공히 우리가 믿는 주 하느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도, 이 다니엘의 경우에는 현대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표기하고 발음합니다. 이태리어 정도만 Daniele (다니엘레)라고 표



기하고 발음할 뿐, 영어, 독일, 불어, 스페인어 등의 주요 유럽언어들에서는 동일하게 다니엘이라고 호칭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모두 공히 다니엘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원전 597년경에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유배(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배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구약성경들의 여러 책들의 내용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학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니엘서는 바빌론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왕 앞에서 갓은 모략과 동시에 사자굴에 처해지는 형벌에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심판자시라는 그런 그의 믿음 덕택에 그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칭송을 받는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름을 지닌 이들의 영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저앉거나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하느님께 대한 굳센 믿음만 지칭하지 않습니다. 더욱 넓게 바라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역경에도 그것을 굳세게 헤쳐나가는 그런 자세를 구하고 찾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 그리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평정

심도 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처럼, 여러 박해나 원치 않는 불이익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가야할 길을 충실히 걷는 인물이 되라는 이 ‘다니엘’ ‘다니엘라’의 길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옳고 그름을 판별해주시고 안내해주시는 ‘자애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느님’으로 현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

Cornerstone



Abbaye de Cluny: All Soul's Day 클뤼니 수도원: 위령의 날

프랑스 클뤼니에 있는 베네딕도회 소속 수도원이었다. 세 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10 ~ 12세기 경 완공되었다. 성 베네딕도에 의해 착수된 쇄신운동은 그가 죽자 곧바로 중단되었으나, 10세기 클뤼니 수도원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특별히 베네딕도 규칙서의 엄격한 준수와 순명, 엄격한 금욕, 전례에 대해 강조하면서 규모가 큰 수도원으로 매우 급속히 성장하였다. 수도원은 초기에 베르노(Abbot Berno, 909-927), 성 오도(St. Odo, 927-944), 성 마올로(St. Mayeul, 954-994), 성 오딜로(St. Odilo, 994-1048), 그리고 성 후고(St. Hugh, 1049-1109)와 같은 성덕과 분별력이 뛰어난 위대한 아با스들의 지도하에 있었기에, 약 200년 간 교회 개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위령의 날(라틴어: Commemoratio Omnium Fidelium Defunctorum, 영어: All Soul's Day)은 11월 2일이며,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의 이튿날로서,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을 기억한다(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11월 3일에 지낸다). 998년 일 년에 한 번씩 위령의 날을 지키도록 명령한 클뤼니 수도원의 오딜로(Odilo)의 영향으로 보편화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이날 3번의 미사를 바칠 수 있도록 허가되었는데, 이러한 특권은 위령의 날과 성탄절에만 부여되었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2

보조 생식술에 관한 생명윤리 3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보조 생식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공통된 부분도 있고, 체외수정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는 단지 그 사람의 의도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조 생식술의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자녀를 갖고자 열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갖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조 생식술의 기술이 인간의 출산에 적용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①부부행위와 출산의 분리 - 이것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모두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출산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부부행위와 출산이 분리될 경우, 부부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소중한 인격의 존엄성이 침해됩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부 사랑의 결실이라는 의미는 부부 행위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부부 행위라는 객관적인 연결점이 사라진다면, 인간은 부부 사랑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생물학적, 의학적 기술이 개입하여 만든 산물로서 추구되거나 잉태될 수 없다.”(생명의 선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기술적 수단이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그 행위의 본성적인 목적에 도달하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완결된 부부 행위를 통해서 채취한 정액을 여성의 질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부 행위를 대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의 정액 채취 방법으로는 구멍난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배아의 조작과 파괴 - 이는 체외 수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즉, 체외 수정 안에서 인간은 제3자, 즉, 과학자의 손에 의해서 시험관 안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배아 중에서는 일부만 선택되어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됩니다. 이때, 남은 배아들을 잔여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잔여배아들은 냉동 보관됩니다. 많은 경우, 체외수정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잔여배아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려진 배아들은 몇 년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실험도구로 사용되거나 폐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잔여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실되고 파괴되는 배아는 90페센트에 달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9명의 배아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에 이용되는 배아는 일종의 도구처럼 사용됩니다. 배아의 조작과 파괴 문제는 체

외 수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처럼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종종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다양한 인공 생식 기술들이 실제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③부모와 자녀, 과학자의 동등한 관계 파괴 - 또 하나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그 자녀를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과학자의 관계가 결코 동등한 관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의 과정 안에서 자녀는 ‘선물’이 아니라 ‘산물’이 됩니다. 즉, 부모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역시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체외 수정은 이러한 자녀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체외수정에 개입한 과학자와 자녀의 관계는 마치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처럼 종속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것 역시 동등한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성에 위배됩니다.

④여성 몸의 도구화 - 또 하나는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체외 수정의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몸에는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한 약물이 주입되고, 마치 난자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취급됩니다.

⑤혼인의 단일성 파괴 - 이는 비배우자간 보조 생식술이 가져오는 문제점입니다. 정자나 난자가 제3자의 것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단일한 결합과 둘만의 결실인 자녀의 관계는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을 “생물학적 간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임인 배우자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가정의 안정과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⑥가족관계의 파괴 - 비배우자간 보조 생식술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이 기증한 정자가 수 많은 자녀를 잉태시키는 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남성은 매년 자신이 기증한 정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즉,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자나 난자 기증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기증된 정자 혹은 난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되는 것입니다.

⑦대리모 문제 - 대리모를 고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대리모를 자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이 임신을 지속할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대리모를 고용한다면, 그 자녀는 두 명의 어머니를 갖게 됩니다. 즉,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자신을 태중에서 길러낸 어머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철삭 동이나 팔삭 동이의 경우처럼 충분한 시간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수정되고 자라야 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때때로 대리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조 생식술은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전달이 지니는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나프로 임신법(Napro Technology)이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음호에서는 나프로 임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혼인성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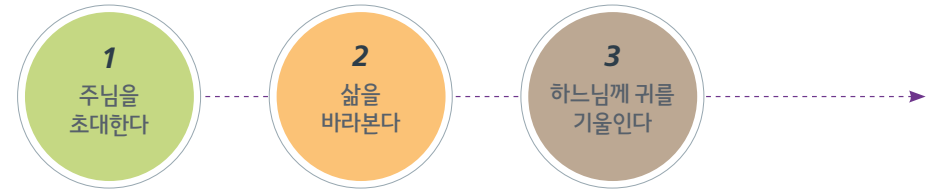
요셉은 장남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부딪혔다. 가장 큰 어려움은 결혼 예식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이 믿음 깊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해 왔다. 그런데 새 며느리가 될 사람은 학창시절에는 개신교를 다녔으나, 현재는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요셉은 자녀들이 당연히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할 것이라 여겼다. 그런 아버지의 바람을 알고 있는 아들은 배우자 될 사람과 함께 성당에서 행해지는 결혼식에 가서 그 분위기를 접해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신붓감이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꿈이라고 하니 마음이 참 무거워진다.

요셉은 주님께서 좋은 선택을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아들 부부와 이렇게 결정 하였다. 결혼식 장소는 두 사람이 희망하는 대로 하고, 그 전에 혼인교리나 약혼자 주말 프로그램을 다녀온 후에 관면혼배(寬免婚配)를 하기로 했다. 요셉은 새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다.

Question

- (1) 혼인성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나누어 봅시다.
- (2) 자녀의 결혼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마태오복음 19장 4b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주님께서 왜 부모로부터 떠나라고(독립) 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혼인성사는 신자인 남녀가 부부로서 일생동안 인연을 맺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며, 자녀를 낳고 서로의 선익을 위하여 살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고유한 은총으로 결혼생활과 자녀출산과 그 양육을 통하여 서로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부부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교회헌장 11)



※ 관면혼배(寬免婚配)란 부부 중에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편이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 경우 교회법에 의해 혼인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관면혼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편과 비신자편이 같이 서약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주교 신자측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다른 종교인과(또는 무종교인) 결혼을 해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천주교 의식에 의해서 영세 입교 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교육 시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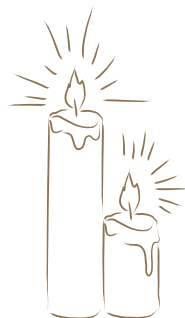
2. 신자아닌 배우자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다음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 하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 : 선택, 약혼자 주말 피정 등



고전 음악을 듣다

모차르트 (2) -
‘8살의 영원한 천재’의 탄식과 죽음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지난 호의 모차르트의 여행은 그를 이해하는 ‘키(key)’가 된다. 모차르트의 장거리 여행을 요즘의 시각으로 휴가 개념의 여행으로 보아서 안 된다. 18세기 당시 모차르트만큼 장기간, 장거리 여행을 한 이는 드물었다. 아니, 거의 없었을 것이고, 음악사에서 모차르트 말고는 그 이전 이후에도 없다. 지난 호에 길게 모차르트의 여행을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차르트의 여행은 그야말로 절박한 여행이었다. 거기에는 그의 인생에 드리워진 탄식이 있다.

1777년 가을부터 1779년까지의 만하임, 파리로의 구직여행은 실패로 끝났고, 알로이지아와의 사랑은 실패로 끝났으며,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망연자실하였다. 피아노 소나타 8번 a단조 K.310과 함께 작곡했던 바이올린 소나타 21번 e단조 K.304는 41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유일한 단조곡으로 ‘탄식의 동기’가 나온다. 1780년 위촉받은 오페라를 작곡하고자 뮌헨까지 갔지만, 오페

라 ‘이도메네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선제 후 카를 테오도르의 궁정악정이 되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다. 잘츠부르크에서의 불만이 쌓여가던 모차르트는 마침내 1781년 빈의 대주교 궁전에서 사표를 내고 콜레레도 대주교의 직속 부하 아르코 백작에게 영당을 차이는 수모를 겪은 끝에 이제 완전히 결별하였다. 이때부터 1791년 12월 5일 35세의 아까운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프리랜서’로서 빈에 정착하여 활동하였다. 아버지 레오폴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82년 8월 알로이지아의 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하였고, 이제 가장으로서 생존을 위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생존을 위한 작곡에 몰두하였지만, 결국 허망하게,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였다. 모차르트의 삶은 이렇듯 허망하다.

그렇게나 황제 요제프 2세의 눈에 들고자 애썼으나 1787년 글루크가 사망하고, 3개월 후 그의 후임으로 궁정 작곡가로 임명된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때는 음악회의 인기가 사

Goffredo Amadi *Mozart*

Mozart, c. 1781, detail from portrait by Johann Nepomuk della Croce



그라져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였고, 매년 800굴덴이라는 보수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던 최악의 시기였다. 1788년 6월부터 8월, 이제는 사라져버린 청중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거의 처음으로 자신만의 마지막 교향곡 3곡을 작곡한다. 1773년 잠시 들렀던 빈에서 작곡한 유일한 단조교향곡(25번 g단조) 이래 다시 40번 g단조 교향곡으로 애수어린 감정을 드러내고, 마지막 41번 교향곡 ‘주피터’에서 당당한 위용을 드러낸다.

모차르트는 평생 구직이나 경제적 자립, 다시 말해서 제자 교육을 위한 레슨이나 헌정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작곡하여 하이든이나 후일의 베토벤처럼 형식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개척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고단한 삶에 쫓겨 기존의 형식, 즉 바로크 후기의 단순화된 춤곡 양식이나 균형 잡힌 소나타 형식 그대로 사용하지만, 자연스러운 선율미가 넘쳐난다. 더욱이 아버지 레오폴드는 점차 전문음악가를 넘어서 누구에게나 보편화된 악기 연

주를 강조하여 아들에게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쉬운 음악을 거듭 강조하였다.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단순함이 합쳐져서 그의 음악은 순수함과 자연미가 넘친다.

1784년 빈에서 출판된 피아노 소나타 K.331은 1악장을 변주곡으로 시작하여 2악장 미뉴에트를 거쳐 ‘터키행진곡’으로 잘 알려진 3악장으로 마무리 되면서 소나타 형식의 악장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불협화음도 사용하여 1785년의 현악 4중주 K.465에는 첫 악장 알레그로에 아다지오의 불협화음을 삽입하여 ‘불협화음’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 현악 4중주를 듣고 하이든은 아버지 레오폴드에게 ‘당신 아들은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하였고, 자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의 서곡 ‘혼돈’의 첫머리에 이를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모차르트는 스스로 입장권 판매를 책임진 일인 기획사가 되어 빈 최초로 당시 화려하게

Mozart: Piano Concerto No.20, K.466; Piano Sonatas, K.281 & 332

Seong-Jin Cho/ Chamber Orchestra of Europe

Release Date: November 16, 2018

Duration: 01:03:39

Label: Deutsche Grammophon(DG)

UPC: 0002894835528



지어진 복합상가건물 ‘트라트너호프’에 연주 회장을 마련하여 1784년 17회의 연주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1785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금요연주회’를 기획하였으나, 1788년 터키와의 전쟁으로 오스트리아의 경제가 몰락 하면서 1789년 7월에는 슈비텐 남작 단 1명만이 예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다. 중산층의 청중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주 고객인 귀족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모차르트는 늘 최고가의 옷을 차려입고 (낭비벽이 심했다는 오해가 여기서 연유함!) 관현악단 연주자들을 고용하고 비용은 만만치 않게 들었고 채무는 늘어만 갔다. 모차르트 사망한 달 전까지도 채무 재판이 진행될 정도였다. 1785년 금요연주회의 첫 연주회 때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466이 초연되었다. 1악장 첫부분의 먹구름처럼 몰려오는 불길한 화음은 마치 트라트너호프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모차르트의 근심처럼 느껴지는데, 점차 후반으로 접어들며 슬픔을 억누르며 빠

르게 기교를 과시하고 마지막 눈부신 카덴차가 펼쳐진다. 후일 베토벤과 브람스 모두 이 곡을 너무나도 좋아하여 카덴차를 직접 작곡했을 정도였다.

모차르트 스스로 지휘하며 연주하였던 피아노 협주곡들은 그 파격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각인시킨다. 피아노 독주가 아직 협주곡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로 시작한다든지, 코나나 경과 구에서 새로운 주제가 계속 등장하고, 도약이나 옥타브 분할, 빠른 화음 진행과 함께 제2주제나 발전부가 엉뚱한 곳에서 나오기도 한다. 오늘날 음대 작곡 수업의 과제로이었다면 F학점 맞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형식의 틀 안에서 파격은 조화와 균형을 벗어나지 않는다. 천재라는 말 외에는 이에 적합한 다른 표현이 없다.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는 말한다. ‘모차르트는 여덟 살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천재는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



Fortepiano played by Mozart in 1787, Czech Museum of Music, Prague

Mozart: Die Zauberflöte

Karl Böhm/ Berliner Philharmoniker
 Evelyn Lear/ Lisa Otto/ Roberta Peters
 Recording Date: June, 1964
 Duration: 02:27:26
 Label: Deutsche Grammophon(DG)



라 그 자체로 천재인 것입니다. 그는 하늘이 완성시켜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음악학자들은 희망과 절망, 쾌락과 고통, 도덕과 타락 등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이 모차르트의 짧은 악절에 공존하는 ‘복합적 공존’의 천재성에 공감한다. 더 나아가 기악곡이 성악곡처럼, 성악곡이 기악곡처럼 닳아 들리고, 감각적 쾌락을 주는 동시에 신성한 영성을 드러낸다.

오페라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사후 최대의 흥행실적을 올렸다. 평생 그렇게 고대했던 당대의 승부수 오페라에서 사후에나 모차르트에게 부를 가져다주었다. 원래 1781년 ‘이도메네오’와 1782년 ‘후궁으로부터의 탈출’로 요제프 2세의 마음을 사로잡았건만, 1786년 ‘피가로의 결혼’은 반체제의 혁명성으로 간신히 초연되고, 1787년 ‘돈 조반니’는 외국 프라하에서야 초연되었다. 1789년 ‘피가로의 결혼’이 재공연 되면서 성공을 거두

었으나, 1790년 ‘코지 판 투테’는 후원자 요제프 2세가 사망하면서 중단되었다. 대본작가 다 폰테(da Ponte)와 호흡을 맞추었기에 다 폰테 3부작이라고 한다. 모차르트는 새 황제 레오폴드 2세의 프랑크푸르트 즉위식에 자비를 들어서 갈 정도로 기대하였으나, 궁정악장 살리에리의 작품이 공연되고 자신의 ‘돈 조반니’의 독일어 공연은 취소되었다. ‘마술피리’는 요제프 2세의 계몽적 개혁정책으로 궁정극장이 아닌 빈 외곽의 비덴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서민을 위한 독일어 오페라(‘징슈필’)이었던 ‘마술피리’는 베네치아 출신 유랑배우였던 슈카네더(Schikaneder)가 극장주로서 대본도 썼다. 당연히 독일 민족주의와 계몽주의가 강조되었지만,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 요소들을 넣었다.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Eb장조가 서곡부터 작품 전체의 주된 조성을 이루고, 다신의 칸타타 ‘프리메이슨의 기쁨(Die Maurerfreude)’ K.471의 악구들이 자주 나온다. ‘피가로의 결혼’으로 정

Morgenlicht - Kirchenlieder & Choräle
 (Included 'Mozart: Ave Verum Corpus, K.618')

Maria Todtenhaupt & Jorg Strodthoff
 Release Date: April 8, 2013
 Duration: 1:01:57
 Label: Deutsche Grammophon(DG)
 UPC: 00028948355280



치적 도박을 감행해 어려움에 봉착하였던 모차르트는, 겉보기에는 마치 어린이를 위한 동화 같기도 한 ‘마술피리’에 어찌면 그보다 더 ‘자유, 평등, 박애’의 프리메이슨 이념을 숨겨 두었다. 모차르트의 진심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취업난 속에 허덕이는 젊은 20대 청년과 같이, 모차르트는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구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나서 홀로 독립하여 프리랜서로 발 벗고 뛰다가 건강을 잃고 죽었다. 모차르트가 자신의 애제자 쥐스마이어를 불러 간신히 불러주며 작곡하다 멈춘 마지막 악절 ‘라크리모사(눈물의 그 날)’의 8마디는 그의 생애를 압축해준다. 공교롭게도 그 8마디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작곡한 바이올린 e단조 소나타의 ‘탄식의 동기’를 닮았다. 쇼팽은 죽을 때 자신의 장례식에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때까지 여성의 성악을 금해왔던 파리의 성 마들렌 성당은 여성의 합창이 들어있는 모

차르트 레퀴엠 때문에 장례미사를 2주간 연기하다가 쇼팽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양보하였다.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조차 그가 죽던 날 밤 처칠이 선물했던 축음기 위에 올려있던 마지막 LP는 피아니스트 마리아 유디나가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이었다. 스탈린은 유디나의 모차르트를 듣기 위해 그녀를 강제수용소로 보내지 않았었다. 필자의 젊었던 독일 유학시절 겨울밤 전차 환승을 위해 기다릴 때, 프라이부르크 성당 앞,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인해 빛나던 화려한 불빛을 뚫고 은은히 들려오던 성가대의 합창, 모차르트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K. 618 (육신이 사람이 되시어..=가톨릭성가 194번 <성체에 계신 예수>)’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모차르트의 탄식은 아직도 우리를 울린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시작, 텔아비브(Tel Aviv)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지만,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대한민국과는 멀리 떨어진, 무덥고 건조한 땅, 중동 어느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뉴스에 분쟁 소식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이슈가 늘 있는 나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 안에서, 전례 안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장소이며, 아브라함에서 사도 바오로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생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긴 세월의 서로 다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땅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따뜻한 햇빛의 온도와 머리카락을 스쳐가는 바람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함께 여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가는 하늘 길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다행히도 대한항공 직항노선이 있습니다. 주 3회 운항을 하는데, 아주 큰 비행기가 아니어서 성지순례 성수기인 겨울철과 부활절 전후에는 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하거나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방법, 또는 이탈리아를 함께 순례하면서 로마를 경유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직항을 이용하게 되면,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12시간 30분 정도 비행한 후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그리고 사납게 생긴 이스라엘 정치인의 얼굴. 황토빛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회색빛의 네모 건물들을 상상하며 약간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까다롭기로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입국 수속이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다니는 젊은이들이 까다로운 입국수속의 대상인데, 그 이유

는 베들레헴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체류 기간과 머무를 장소,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본 뒤에 입국허가가 나면 다른 나라처럼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명함크기의 입국허가 확인증 같은 것을 줍니다. 이런 방법을 도입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여권에 이스라엘 도장이 찍혀있으면 다른 이슬람국가를 방문할 때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이에 찍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졌지요. 아니 그런데 너무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 거부라니요? 내가 그 나라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국 거부라니요!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정도로 이슬람국가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슬람국가, 예를 들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 등의 입국도장이 여권이 찍혀있다면 이스라엘 입국이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입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질문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이스라엘 입국을 허가해 줍니다. 그런 정보를 듣고 이슬람국가들을 다녀오신 분들은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입국과정에서 겪은 무용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스라엘은 못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다행히도 요즘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

니다. 대한항공 같은 본국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바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수월한 입국수속에 놀랄 정도로 무난하게 입국을 허가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바레인 등의 이슬람 국가들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작했다하니 조금은 덜 까다로운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바깥으로 나오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밤바람이 먼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직항은 한국에서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저녁이나 밤

이 됩니다. 일단 가까운 텔아비브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쉬어야겠습니다. 공항에서 20여분 떨어진 텔아비브 도심과 해변 주변에는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시나 웨루트라고 하는 승합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텔아비브로 가는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의 면적에 9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는 승용차 렌

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밝은 햇살이 내려오는 지중해의 아침이 기쁘게 우리를 반깁니다.

서울의 서쪽이고 바닷가를 마주하고 있는 도시 인천과 같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예루살렘의 서쪽이고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텔(Tel)-언덕, 아비브(Aviv)-봄. 즉 봄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의 이 도시는 세워진지 100년 남짓 되는 새로운 도시이지만, 각국의 대사관을 비롯한 세계 기업들의 지사가 있는 국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크게 성장하면서 남쪽의 고대도시 야포



(Yafo)와 합쳐져 현재는 텔아비브-야포(Tel Aviv-Yafo) 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한국은 한강 북쪽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들이 많고 남쪽에 새로운 도시들이 많다면, 텔아비브는 야르콘 강 중심으로 남쪽이 야포를 비롯한 오래된 도시들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신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 로메인 상추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샐러드와 그레이프 프룻(우리에게는 자몽으로 알려져 있지요) 주스, 오렌지 주스, 우유와 커피, 계란, 치즈 등으로 아침식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꼭 아침식

사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낙농업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고 햇빛이 풍부한 지중해권이 기 때문에 맛과 신선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호텔이나 호스텔 등에서 아침식사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성에 차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그럴 때에는 근처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카페가 아침식사 메뉴가 있고, 지중해 바람을 맞으며 편안한 차림으로 느긋하게 신문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이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브런치를 즐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변에는 하얗고 고운 모래사장 위로 파란

지중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비교적 사나운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과 운동을 즐기는 텔아비브 시민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상했던 거친 환경의 이스라엘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을 봅니다. 아무리 추워도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달리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샌들을 신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텔아비브 해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커피 한모금 마시고 한 숨 편안히 쉬고 가 보려 합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카뮈의 <페스트>와 ‘시대를 이기는 힘’

최대환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한 의사에 의한 연대기

카뮈의 <페스트>에 대해서는 올 한해 여러 기회를 통해 자주 들었습니다. 술한 칼럼이나 에세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이나 사람들의 내적인 황폐함,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대해 진단하면서 카뮈의 이 작품은 때로는 바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 처럼, 어두운 미래에 대한 ‘묵시록적’ 예언서처럼, 아니면 윤리적 올바른 바를 위한 지침서처럼 언급되곤 합니다. 이 책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방송이나 유튜브가 차고 넘쳐나서 <페스트>을 읽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미 이 책을 읽은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페스트>에 ‘관해’ 지켜올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책은 정독을 하고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뜨겁고 강렬해 보이는 책 안에는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거닐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뮈가 이 작품을 타루의 관점에서 썼다면, 훨씬 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닮은 소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페늘루 신부를 더 집요하게 탐구하였다면, 고대 교회가 자리하던 세계까지 거슬러가서 ‘이단’들에 대한 흥미로운 신학적 토론이 등장하였을 것이고, 그때 ‘페스트’는 그야말로 상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랑베르가 주인공이 되었다면, 마치 하드 보일드 소설이나 누아르 영화와 같은 분위기가 작품

카뮈가 살았던 프랑스 남부 루르마랭(Lourmarin). 그는 노벨 문학상 상금으로 이곳에 집을 마련했다.



을 지배하였을 것 같습니다. 코타르에 목소리와 서사를 더 주었다면, 위악적인 행위에 대한 두려움과 매혹이 동시에 느껴지는, 앙드레 지드가 실험했던 ‘반도덕적인’ 소설들이나 샤르트르의 <구토>와 닮은 작품이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설의 도처에는 조지 오웰이 탁월하게 문학화한 ‘예외상태’가 불러올 수 있는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와 디스토피아의 악몽을 환기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뮈는 이러한 주제에 한발 더 깊이 들어가는 카프카적인 미궁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지 않습니다. 카뮈는 페스트를 은유로서 선택하였으나, 그의 작가적 직관은 오히려 페스트를 둘러싼 사건과 인물을 마치

가장 금욕적인 다큐멘터리에서 보이듯 즉물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문학적인 풍부함과 사색의 깊이가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이 긴 시간을 이겨내고 여전히 낡지 않은 ‘오늘의 고전’으로 존재하게 하는 비밀이라 생각합니다. ‘페스트’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페스트>가 오늘날에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며 마치 ‘빈 서판’처럼 각자의 절실함을 비추어 주는 탁월함은 이 작품에서 의사인 리외가 주인공이며, 그의 눈을 통해 페스트가 일으키는 파장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고도 남을 사연이 수시로 교차하는 이 소설을 흐르는 가장 깊은 강과 같은 정서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되 담담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현실인식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의사 리외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카뮈는 여기서 어두운 시대의 가장 작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 리외가 감정이 결여된 ‘냉정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일체의 서사가 생략된 채 기능으로서만 소비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냉정하고자’ 애쓰는 사람이고, 이는 그에게는 내적으로 확고하게 인식된 사명이자 시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방식입니다. 폐렴으로 죽어가는 그의 아내는 도시 밖의 요양소에 있기에 리외는 그녀를 만나 보지도 못합니다. 다정다감한 노모의 안쓰러운 눈길은 리외의 내면의 연약함과 북받치는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리외 역시 ‘유배’와 ‘분리’의 아픔에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스트와 투쟁의 마지막 고비에서 리외는 가장 믿음직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타루를 잃습니다. 요컨대, 리외는 통절한 마음으로 이 고통의 시대를 동시대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면서도, 이러한 시대에 참여되기 쉬운 가장 높은 차원의 이타적 자기절제를 통해 증인이자 미래를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자기의 진찰실을 나서다가 총계참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했다.”
- 카뮈의 <페스트> 본문 중에서

위한 희망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리외의 고백에서 카뮈가 작가로서 어떤 태도로 이 주제를 다루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기도 끝맺을 때가 되었다. 이제 의사 바르나르 리외 자신이 이 연대기의 작가였음을 고백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사건들을 서술하기 전에,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이 이 일을 떠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자신이 이 연대기를 객관적 어조로 증언하듯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페스트가 유행하던 기간 내내 그는 직업 관계로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느끼는 바를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가능한 한 신중하게 수행하려고 했다. 대개의 경우 직접 본 것 이상은 기록하지 않으려고, 페스트를 겪은 사람들이 품지 못했던 생각을 그들

에게 억지로 부여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혹은 불행한 인연으로 수중에 넣게 된 텍스트만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범죄 사건에 증인으로 불려갔을 때도 그는 선량한 증인이 갖춰야 할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면서도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단호한 태도로 희생자의 편을 들었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확신, 즉 사랑과 고통과 유배의 확신 속에서 인간들과, 시민들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느낀 불안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가 나누어 겪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 어떤 상황도 그의 상황이 아닌 것이 없었다. (...) 요컨대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야기를 해야 했다.”

- 카뮈, 『페스트』, 유희식 옮김, 문학동네, 2015, 352-353

카뮈는 리외의 눈으로 페스트의 시초와 결말을 다루며, 그가 애써 감정을 냉정하게 절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도덕적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페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웅담이나 과장된 언론의 나팔소리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냉정하게 ‘연대기’를 적어가는 의사 리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냉정함’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성실함’입니다. 영웅적 자의식이 아니라 소시민으로서의 한 의사가 보이는 ‘성실함’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견뎌내고 극복해내는 희망이라는 전언을 카뮈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라는 직업은 전능한 구원자나 어려운 위기를 과학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전문가의 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뿌리박고 일상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책임으로 맞이하는 어쩌면 평범한,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참으로 만나기 힘든 성숙한 한 인간의 표상이라 생각합니다. 훨씬 이전에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이상적 인간형으로 도야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빌헬름 마이스

터 연작’에서 처음에는 시인을 그 주인공으로 삼았다가, 긴 세월이 지난 후 외과의사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이 떠오릅니다. 카뮈는 선전이나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추상적 인류애가 아니라 동료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는 시민의 덕이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 덕은 ‘성실성’이자 ‘담담함’이며 ‘겸허함’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덕이야말로 사실은 절망에 굴하지 않는 의지의 표징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이기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리외가 보여주듯이 일상을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대 속에서 점점 형체를 얻어가는 정화된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학은 이를 전통적으로 ‘용기의 덕 fortitudo’라 불렀습니다.

카뮈의 <페스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의 고전’이라는 말에 잘 부합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게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면서, 때로는 시민적 권리라는 이름 하에서 당연시 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갖는 한계를 보도록 우리를 채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면서도 복음의 빛 안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인이 바로 지금 <페스트>를 읽는 것은 날카로운 도전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얻게 되는 용기와 위로를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❶

티나씨의 티비보기

그리워라, 함께 부르는 노래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성당에서 주일미사 반주를 다시 맡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반주의 환경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교우들의 노래를 뒷받침하는 반주였다가, 공동체 미사 중단으로 공백기를 가졌다 재개한 뒤에는 노래의 공백을 메우는 독주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새삼스러운 것은 반주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과 나 자신의 태도 변화이다. 예전에는 덤덤히 지나치던 전례 봉사자들이 요즈음엔 미사를 마친 뒤 따로 찾아와 ‘수고했다, 참 좋아하는 성가를 들려주어 고맙다, 묵상에 도움이 되었다’며 인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공동체 미사 재개 초기에는 나도 고난도 연주곡을 선보이려는 욕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례일과 독서를 확인하며 그 즈음에 빼놓으면 허전할 것 같은 친숙한 곡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당에 노랫소리가 끊기면서 성가를 연주하는 나도, 듣는 신자들도, 노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는 중이다.

침방울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규제당한 노래는, 그 대신 2020년의 TV에서 뜨거

운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케이블 채널들의 무한 재방송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즐겁게 무한 복습하시는 ‘미스터 트롯’과 그 전작인 ‘미스 트롯’을 위시해, 웬만한 공중파와 종합편성 채널들도 트로트 공연과 경연 프로그램을 일제히 선보인 덕분이다.

왜 트로트일까? 유지와 활동 비용이 많이 드는 아이돌 그룹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현철의 ‘봉선화 연정’과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 등 가요계를 장악했던 1980년대 말의 명곡들을 되짚어 보고, ‘집콕’하면서 최근에 익힌 신곡들도 살펴본 끝에 나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이 주로 출연하는 ‘뮤직뱅크’나 가창력의 각축장인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도 즐겨 보았지만, 그 프로그램들 속의 노래는 주로 듣는 것이었지 따라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니었다. 노래의 구성과 편곡도 도발적이거



나 전위적인 경향이 짙었고, 가사에도 연인 간의 배신, 분노, 복수심 등 독한 설정이 적지 않았다.

반면 이미 아는지도 모르게 알고 있었거나 최근에 새로 알게 된 트로트 노래들은, 큼직 큼직한 가사 자막 덕택이기도 하지만 익히기가 쉬웠다. 가사도 믿음직한 우정, 지고지순한 사랑, 주변인에 대한 연민과 응원, 삶에 대한 긍정과 낙관 등 착하고 건전한 내용 일색인 데다가 무엇보다 재치와 해학이 있었다.

그뿐인가. 2020년 노래 열풍의 정점에 선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젊은 가수들은 어린들에게 더없는 재간동이 효자들이었다. 1990년대생도 드물지 않을 만큼 젊은 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패기가 있었다. 탄탄한 가창력은 기본이요, 기성세대가 선호하는 트로트 가수임에도 젊은이 특유의 발랄함을 간직한 그들은 최신 발라드와 댄스 음악도 훌륭하게 소화했다. 그렇게 그들은 화면 너머의 어르신들에게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트렌드 전도사가 되었다.

어느 새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명곡들의 후렴구를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르게 된 나는, 이제 기성세대의 반열에 들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노래를 들음에 그치지 않고 부름은 노래를 만들고 부른 이들이 보낸 메시지에 감응하여 화답하는 일이다. 젊은 이들이 콘서트에서 하는 ‘떼창’은 물론이거니와, 가깝게는 코로나19 이전 시절 주일 교종미사에서 교우들이 성가대와 주고받던 대영광송도 음악 언어로 나누는 대화이자 하나 됨의 체험 아니었던가.

성당에서도 노래방에서도 마음 놓고 노래하지 못하게 된 지금, 함께 부르는 노래, 같은 박자와 호흡으로 공감하는 희로애락에 대한 그리움은 침방울도 바이러스도 안전하게 차단된 서늘하고 네모난 화면 안에서 조용하고도 뜨겁게 끓고 있다. ☺

성미술 이야기

우리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천사

정용모 신부,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우리는 어느새 한 해의 끝 지점에 가까이 서 있다. 교회의 한 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시기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며 마무리한다. 다가오는 11월 29일이 대림 제1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11월이 올해 마지막 달이면서, 동시에 새해 첫 달이다.

코로나 전염 사태로 암울하게 시작한 2020년도 서서히 저물어간다. 이 전염병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자문하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산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세계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다시 신앙인의 언덕에 우뚝 서있는 명동대성당으로 발길을 옮긴다. 예전 같지 않은 텅 빈 마당과 성당 내부가 여

전히 낯설게 비쳐진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고 조그맣한 성당에서 비로소 제단 주변과 내부에 있는 여러 성상과 성물이 조금씩 눈에 들어온다.

제단의 양쪽 옆에는 한 묶음의 촛대 다발을 들고 있는 두 천사상이 있다. 연분홍 옷과 녹색 옷을 입은 천사는 한결같이 촛대를 들고 제단을 지킨다.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미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텅 빈 성당 안에서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두 천사상은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명동성당이 축성되었던 1898년 이후부터 줄곧 이곳에서 서서 제단과 우리를 바라본다.

천사는 하느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로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심부름하는 영적인 존재다. 천사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해 준다. 천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세상 너머의 또 다른 하느님 나라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느님 나라에는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과 무수한 천사와 성인 성녀, 하느님의 뜻을 충실이 따른 선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그런데 천사는 하느님 나라나 성당의 제단 옆에만 있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천사를 만날 수는 없을까? 가끔 우리는 세상에서도 천사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인물을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자신보다도 고통 중에 있는 병자를 돌보는 간호사나 의료진들은 날개 없는 천사, 혹은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병자들은 다시 회복되어 소중한 생명을 되찾고 사랑스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물질을 우상화 하는 시대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천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과 사회를 지탱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밝아오는 시점에서 다시 명동대성당의 천사상을 바라본다. 두 천사는 여전히 촛대를 들고 불을 밝힌다. 혼탁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앞길을 비추며 우리 삶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 🕯



회원가입 '우리농' 홈페이지를 검색하세요. 🔍

도시와 농촌의 형제적 사랑



많은 성당에서
'우리농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농촌성당 공동체들과 결연을 추진하여
'농촌체험'과 '일손돕기'와 같은
도시와 농촌간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성당에 주말장터나 생명농산물 나눔터를 만들어 미사전후에
농민 형제자매들이 생산한 생명농산물을 나누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적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시와 농촌의 신자들이 '형제적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손으로부터 빌려온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입니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2015년 가을권이 감사미사 미사강론 중



facebook.com/wrn.kr



seoulwurinong



www.wrn.or.kr

우리농 명동나눔터 서울대교구 직원 회원 5% 상시 할인됩니다.





Alexander Nevsky Cathedral

The St. Alexander Nevsky Cathedral is a Bulgarian Orthodox cathedral in Sofia, the capital of Bulgaria. Built in Neo-Byzantine style, it serves as the cathedral church of the Patriarch of Bulgaria and it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50 largest Christian church buildings by volume in the world. It is one of Sofia's symbols and primary tourist attractions.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910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